

채식과 환경적인 문제 - 한겨레 1999.03.19 (금) 기사 -

채식은 인류역사에서 비교적 오래된 전통이다. 현대의 채식주의의 운동의 한 특징은 **환경운동과 결합**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이 두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식량과 기아문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프랜시스 무어는 “곡식을 먹여 키운 고기 중심의 식생활 체제는 자원을 낭비할 뿐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의 관점에서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이 장기적으로 식량확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몇가지 근거들을 살펴보자.

▶ 물 낭비 -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약 2만ℓ의 물이 필요하다. 토마토 1kg을 생산하는 데 110ℓ, 통밀 1kg을 재배하는 데는 525ℓ의 물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물이 소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물의 절반 정도가 소와 그외 가축을 기르는 데 쓰이고 있으며, 텍사스 북부의 관개용 수자원은 이미 고갈돼 가고 있다. 몇십년 안에 지하의 수자원은 크게 줄어 현재의 관개시설의 3분의 1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리라고 과학자들은 계산하고 있다.

▶ 열대우림 파괴 - 1900년대 이래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됐다. 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3분의 2를 소나 다른 가축들이 점유하게 됐다. 멕시코에서 87년 이후 15만km²의 숲이 방목지를 만들기 위해 파괴됐다.

▶ 에너지 낭비 - 1kg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4만4천kcal가 든다. 이 화석연료는 주로 가축 사료용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소비한다.

▶ 지구온난화 -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삼림 및 초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공기중에 방출된다. 또 가축용 사료를 생산하고 싣어나르는데, 도축을 위해 가축을 싣어나르는데 쓰이는 화석연료도 주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다.

뿐만 아니라 소들이 먹는 사료용 곡물을 생산하는 데 석유화학 비료를 이용해야 하고 이것이 또한 온실 효과의 원인이 된다. 이밖에도 소들이 트림이나 방귀를 통해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내뿜는다.

▶ 식량문제 - 소와 기타 가축들은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 이상이 가축의 먹이로 제공된다. 코넬대학의 데이비드 퍼멘틀 교수는 “미국에서 가축의 먹이를 완전히 풀로 바꾸면 1억3천만t의 곡물이 절약돼 4억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3세계 나라들의 토지 수백만에이커가 유럽의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데 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동물사육은 자연훼손의 원인

좁은 공간 안에서 동물들을 대량으로 사육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북미에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마다 엄청난 양의 밀림을 목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초토화 시킨다고 한다.

일단 황폐화된 자연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조성된 초지에 소를 방목시키면서 이들이 배출하는 배설물은 이차적으로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생산된 고기가 인간의 건강을 또한 황폐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브라질의 경우에만 국한 되겠는가? 육식을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은 나날이 가속화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육류소비에 눈에 띄게 증가한 우리나라의 경우

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육류소비를 증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내의 산과 강도 육류생산으로 인하여 나뭇이 오염되고 있다. 도시는 공장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으며 농촌은 동물농장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다. 오염의 정도가 심한 이들 동물들을 현재처럼 사육하다가 가는 물 좋고 산 좋다는 삼천리 금수강산이 상류부터 완전히 오염될 판이다.

동물고기는 비단 생산과정에서만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오른 이후에도 자연을 오염시킨다. 동물고기는 식물에 비해 많은 세제 사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 용수도 더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 사소하지만 채식의 양을 줄이면 세제사용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오염된 도시의 공기를 떠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산과 계곡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때로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싱그러운 산소와 여러가지 나무들과 식물들이 내뿜는 향기가 아니라 고기같은 냄새이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육식의 또 다른 폐해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 출간하는 월간지 <우리과다음. 3월호>

파멸로 가는 이정표, 광우병

기록을 거꾸 경신하는 폭설이 내리자 여기 저기에서 무실이 드러난다. 글썽이가 입주해 있는 싸구려 건물은 옥상의 눈 녹은 물이 장판 아래 스며들어 흠뻑 젖어 고이고, 눈 덮였던 도로로는 두성두성 패였다. 가수들의 공연이 예정되었던 체육관 천장을 흠뻑스듯 주저앉힌 눈은 소외된 농촌 마을에도 예외가 없어, 출하를 앞둔 봄나물과 각종 야채들이 냉해를 입었고, 애써 키운 병아리와 닭들이 모조리 죽어버리는 큰 피해를 당했지만, 농민들의 억울을 무너뜨린 것은 수천만원 농협 빚을 얻어 지은 비닐하우스가 이번 눈으로 겨냥 당해진 일이다. 빚 갚을 길은 막연한데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보수하려면 얼마나 많은 빚을 더 얻어야 하나. 방송 카메라 앞에서 내뿜는 고위관료와 국회의원들의 뻔지르르한 대책과 관계없이 세초제들이키는 영농후계자는 늘어만 간다.

농촌경관을 차갑게 가로막는 비닐하우스는 얼마 전까지 **근교농업단지의 특징**이었지만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요즘, 어디에나 지천이다. 제철을 앞선 채소를 남보다 먼저 출하하려는 조급함으로 출발한 비닐하우스는 이제 농업의 한 분야로 정착한 느낌이다. 돈이 잘 벌린다는 소문을 듣고 너도나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자 어떤 약삭빠른 농부는 연탄 난로를 들여놓아 앞서갔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안가 비닐하우스 농가는 연탄보일러를 지나 기름보일러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보일러 없는 비닐하우스는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설비 투자가 많은 만큼 높은 소출이 보장되어야 하는 까닭에 마음 급한 농부들은 **농약과 화학비료로 승부하기** 십상인데, 환기도 안 되는 제한된 공간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기습 뿌리자 농부들 사이에 하우스병이 만연하고 말았다. 최근 들어, 농약에 진저리치던 소비자들이 전통적 무농약 유기농 야채를 선호하기 시작하지만, 농부들은 섣불리 판행적 비닐하우스 영농을 뿌리치지 못한다. 자본 경쟁이 치열한 영농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도무지 씨앗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찌든 소품종 다량생산의 관행농업과 비닐하우스 영농을 돈을 빨리 많이 쟁기고 싶은 인간의 조합중이 물고 온 우리 농촌의 **치명적 역설**이자 위기라고 본다면, 최근 유령을 중심으로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광우병 파동은 돈 욕심 때문에 생긴 **세계적 재앙**이라 하겠다. 보내기 끝나 봄이 푸석푸석해질 때면 돼지 잡아 바울 잔치하고, 사위 찾아와야

타 잔던 시절,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아토피성피부병 환자는 보기 드물었지만, 소평센터가 푸주간 몰아낸 요즘, 사망률 수위를 다투는 흔한 질병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쇠죽 되새김질하던 시절, 살불이 같은 집안의 누렁 소는 광우병을 모르고 외양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소 팔아 마련한 학자금으로 농과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은 엘리트가 자연 축산업을 몰아내고 기업 축산업을 융합하자, 느닷없이 광우병이 나타났다. 조금한 욕심으로 소도 사람도 미처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질사료를 먹인 비자연적 축산기술 때문이었다. 6개의 앞니가 아래턱에만 배열된 독특한 치아구조를 가진 소는 자연에서 풀을 뜯어먹기 알맞게 진화된 동물로, 뜯어 넘겼던 풀을 다시 입으로 꺼내 되새김질하는 해부학적 특징을 갖는다. 그와 같은 소의 습성을 살피는 속도가 더딘 비효율로 계산하는 과학적 축산은, 빠른 기간 내에 몸부게를 늘린 공리를 찾아냈다. 생명공학으로 만든 소성장호르몬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것과 병행하여 육질사료를 주는 혁신적 방법이었다. 상품성이 없는 양의 내장을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사료와 잘 배합하여 컨베이어벨트로 적기 적량 공급하는 컴퓨터 축산 시스템이 그것으로, 소의 성장을 생산공정으로 보는 최첨단 축산시스템은 어린 때가 채 여물기도 전에 몸부게를 잔뜩 불려 발목이 부러져 나갈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몸을 추스르기조차 어렵게 배곡 채운 밀폐된 축사에서 암모니아가스와 파리 모기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은 질병에 쉽게 감염되지만 먹이를 공급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불을 꺼두거나 수시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과학으로 대처하고, 되새김질을 못해 안달하지 못하도록 반추위에 수세미 쭈서넣는 과학적 폭력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 아불싸, '스크래피'라 칭하는 인종의 미친 양 중후군에 감염된 양의 내장이 들어갈 줄이야. 과학적 축산은 광우병의 원인을 인간의 실수로 분석해가고 있다.

광우병 대처 방식도 다분히 과학적이었다. 어린 딸을 대동한 영국 농업장관이 햄버거를 맛있게 삼키고 수상이 안전을 화답하는 포퍼먼스도 당시 과학자의 조언이 뒷받침했고, 단지 태어난 지 30개월이라는 적목으로 소각장의 재료 사라진 450만 마리의 남은(?)소도 과학자들의 권고에 따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이었다. 채식한지 10년이 넘는 젊은이가 인간광우병으로 희생되는 비운을 겪한 과학은 인간에게 어떤 비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기피하고 있다는데, 과학적 축산 정책을 믿고 빚 얻어 투자했던 축산기업이 출몰이 노산하는 절차만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과학적이어서 다행이다. 감염 물질이라는 프리온은 800도 고온에도 잘 파괴되지 않고, 소의 부산물을 재료로 만든 화장품을 바르는 것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유럽 과학자들의 경고를 '우리는 방역이 완벽하니 안심하라, 먹지 않으면 괜찮다, 끓여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일축하는 우리 농정당국은 어떤 과학적 근거를 믿고 저토록 반응일까.

최첨단으로 사육되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소화제 항생제 발기부전제 환각제 변비약 살베는약 잠오는약 잠안오는약 술깨는약 수돗물불소화를 비롯하여 어린 아이에게 성장호르몬을 주사하고, 갱년기가 훨씬 지난 노인에게 회춘 목적의 성호르몬을 유리적 성찰 없이 손쉽게 처방하는 의료행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과정과 다양성을 경시하는 절름발이 입시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성장을 눈머리부터 저해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은 또 어떤 사육과정인가. 고등학생은커녕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밀어닥친 입시 교육은 자기 자식의 교과과정이 남보다 앞질러 가야 비로소 안심하지만, 남들도 초조하기는 같은 마음이다. 걸음마도 배우지 못한 아기에겐 연필부터 쥐어주고, 우리 말글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청소년에게 영어 학원이다 해외연수다 가산을 탕진하는 뿌리 없는 외국어 교육 백태.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게 불붙여 앉혀놓고 '친구가 아니라 경쟁상대'임을 강조하는 이기적 교육열풍 속에 농촌은 공동화되고 생산공장은 외국인에게 떠맡겨졌지만, 나라 경제의 거품이 꺼지자 상당수의 대학졸업자가 졸지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일자리 못 구한 석사와 박사들이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하는 기형적 변학분위기는 총체적으로 어떤 저품현상을 반영하는 것일까.

광우병을 일으킨 소의 조기 성장 못지 않게 사회를 병들게 하기는 조기교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남보다 빨리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도입한 비닐하우스와 기업형 축산은 내 자식만 생각하는 부모의 뼈뿔어진 교육관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로 인한 부메랑은 광우병에서 보듯, 자식 대에 가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모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초식동물에게 육질사료를 먹인 자연스럽지 못한 처사로 빚은 광우병은 조금증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의 필연적 병리현상을 단적으로 응연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기구권의 배타적 이득에 충성하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지불능력이 충분한 무자들의 수명연장을 현혹하는 생명복제 연구개발은 어떤 광우병을 예고할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으르렁거린다면 나는 더 큰칼을 들어야 안전할까. 화해를 시도해야 평화로운 게 아닐까. 비닐하우스 기업축산 조기교육 할 것 없이 자연스럽지 못한 속도는 파멸을 향해 가는 이정표가 아닐까. 한계가 분명한 지구촌에서 지속가능하려면 가장 자연적인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도시나 농촌이나 이웃이 반가운 공동체를 회복하고 제철 제 고장 유식으로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일, 성인병을 부추기는 과다한 육식보다 채식과 소식으로 식단을 전향적으로 바꿔보는 일,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깻벌매립보다 보전을, 다목적댐보다 핵발전소보다 경인유하보다 이웃과 내 노후와 후손을 위해 재생 및 재활용하고 차라리 적게 쓰는 생활의 지혜를 모으면 어떨까. 스스로 가난해지는 삶은 어떨까. 광란의 20세기를 지난 21세기 정초, 다시 한번 붙어타진 광우병 파고는 우리 인간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파멸로 가는 이정표를 예의 주시하라고.

SPECIAL REPORT Newsweek 제 468호 2001.2.28

Where's the Beef?

유럽 식탁에 쇠고기가 사라진다

광우병이 식습관 바꾸고 정치 구도까지 흔들고 있다.

채식주의자·유기농 늘고 녹색당이 떠오르고 있다. Tony Emerson 기자

프랑스 파리의 요리사 알랭 파사르(43)는 프랑스와 프랑스 고급 요리의 발전을 위해 할머니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은 오리 요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파사르는 또 자신의 레스토랑 '라르페주'를 파리 최정상급의 별 세개짜리 식당으로 만들어준 12가지 대표적 육류 및 가공육 요리 역시 메뉴에서 제외시켰다. 송아지 해장 요리, 식용유와 후추를 넣은 랍프(소 엉덩이살) 스테이크, 하리샤(매운 맛의 튀니지 소스)로 맛을 낸 양고기 요리 등이다.

그 대신 그는 한끼 식사에 3백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고객들에게 꽃과 향신료, 근채류와 버섯 등을 곁들인 '양파 요리나 당근 요리, 또는 순두 요리'를 내놓는다. 파사르는 다년간의 심사숙고 끝에 '야채'라는 새로운 요리 영역을 개척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1650년대 이후 일부 요리사가 야채 위주의 요리를 개발한 적이 없었다면서 현재 육류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 대륙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그 일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 덕분에 우리는 육류 요리를 대신할 변변한 야채 요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은 광우병 파동이 일고 있지만 10~20년 후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안에 야채 위주의 요리를 개발해야 한다" 말했다. 야채 위주의 메뉴가 유럽 '식생활의 안전성'을 좌우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정부의 뒤늦은 전사를 통해 유럽 전역의 소매에서 광우병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기 시작한지 불과 몇달 후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두려움의 차원을 넘어섰다. 포르투갈부터 독일

까지 광우병(BSE)에 감염돼 죽은 소는 약 2천마리에 이른다. 또 현재까지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영국이 86명, 프랑스가 2명, 아일랜드가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피해가 가장 심한 영국의 경우 인간 광우병 감염자가 최고 13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우병의 위협으로 이미 유럽인들의 식습관에 변화가 일고 있고 채식주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 산업은 '유기농' 위주로 개조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농업장관들이 부더기로 사위하고 녹색당들의 위상이 세고됐으며 광우병의 위협에 묘안을 치면 유럽 대륙의 기성 정계가 뒤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목을 끄는 것은 소비자 저항운동이 현재 광우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탄받고 있는 '공장식 농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제도에 개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학자 코린 라 파지는 광우병 문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에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 말이 광우병의 영향을 과장한 것인지 불라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광우병 파동은 일과성 현상이 아니라 전이다. 독일의 유기농 농부 헬고 슈미트는 성서의 역병(疫癘)들을 환기시키며 "유럽의 역사는 광우병 이전과 이후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대륙에서 광우병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15년 전 이 병이 처음 발생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광우병에 관한 새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쇠고기 매출이 폭 떨어진다. 또 광우병은 유기농 식품 사업을 활성화했다. 유기농 진흥을 위한 '소일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영국의 유기농 시장은 1990년 이후 6배로 증가해 6억파운드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아직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영국 제2의 식품품 체인인 세인스베리는 카리브해의 섬을 통째로 유기농화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회사는 현재 그레나다·도미니카·세인트 루시아·세인트 빈센트 등 워드워드 군도의 국가들과 바나나·망고·코코넛 등 영국 시장에서 수요가 보장된 과일의 유기농 생산에 관한 협정 체결을 논의중이다.

영국인들에게는 '완전 유기농' 바나나를 중심으로 한 新대영제국의 개념이 전혀 낯잡지 않다. 광우병 파동과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우려로 찰스 왕세자의 유기농장에 대한 조롱도 속 들어갔다. 이제 영국에서 '유기농화'라는 개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럽 대륙에도 그런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초 광우병에 대한 초기 경고를 내놓은 레딩인의 식품안전과 교수 팀 램은 "우리는 현재 유럽 대륙에서 1996년 영국의 재판(再版)을 보고 있다. 유럽인들은 정부와 식품업체가 공모해 광우병을 영국에 국한된 것으로 규정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각국은 오염된 영국산 가축 사료를 통해 광우병이 들어온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파동은 영국의 경우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쇠고기 수요가 프랑스에서 47%, 이탈리아에서는 75%나 떨어졌다. 스톡홀름에서 리스본까지 유럽 각국의 많은 레스토랑들이 메뉴에서 스테이크를 뺐다. 이제 사람들은 포도주의 양조연도를 따지듯 T·본 스테이크의 원산지를 따진다.

쇠고기 팔고는 무슨 고기를 잘 팔리는 것 같다. 파조 농장들과 캥거루·악어 수입업자들은 유럽내 매출이 치솟았다고 말한다. 또 고급 레스토랑들이 영양(羚羊) 스테이크를 내놓고 있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동이 날 지경이다. 독일 최대의 유기농협 '비올란트'의 토마스 도슈 회장은 "매주 2천마리의 돼지가 더 필요하지만 도저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80개 발고기 판매상은 올해 지난해의 배인 7만마리 분의 발고기와 소시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독일의 최대 타블로이드판 신문 '빌트'는 최근 쥐살이 생긴 설치류 '뉴트리아'의 요리법(적포도주와 마늘을 넣고 70분간 끓인다)을 소개했다. 그 후 농부 할레시의 정육점 주인 스펀 헤디케는 뉴트리아 고기를 1천kg 이상 팔았다.

그 다음 단계는 채식주의로 전향하는 것이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최초의 광우병 보고서가 나온 뒤 자칭 채식주의자의 수는 이전의 배인 6백60만명으로 늘었다. 이탈리아의

대부분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수는 지난 한해동안 1백50만명에서 2백50만명으로 늘었다. 물론 이렇게 채식주의로 전환한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동물의 윤리적 보호를 위한 사람들' (PETA)의 독일 지부에는 '초보 채식주의자를 위한 지침서' 주문이 쇄도했다. 질 케 베렌탈 PETA 간사는 한때 이 단체의 극단적인 채식 선호 경향에 대해 우려하던 부모들까지 자녀들을 채식주의자로 만드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다고 말했다. 프랑스 퐁에 있는 유서 깊은 파스퇴르 연구소의 의사 겸 영양학자 장 비셀 르세르프는 "채식주의는 좀 극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고기를 안 먹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던 시대는 지났다. 사람들은 이제 채식주의를 이해한다" 고 말했다.

심지어 고기를 안먹는 것이 멋진 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독일의 테크노. 팝스타 불럼헨과 펄크 디바 니나 하젠은 PETA의 홍보운동에 가세해 육식을 배제한 식이요법을 전파한다. 로마의 사교계 명사들은 요주 스페인 광장 부근의 고급 채식주의자 전용 레스토랑 마르구타 베제타리아나에서 모인다. 또 취리히의 현대적인 채식주의자 전용 패스트푸드 상점 티비르에는 쿠스쿠스(왼 밑에 야채를 곁들인 북아프리카 요리)를 사려는 10대들이 줄을 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인들도 나서고 있다. 스웨덴의 고란 페르손 총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적색육류의 섭취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채식주의자 보건장관 움베르토 베로네시는 학교 식당에서 적색육류의 사용을 금지했다. 조제 보베가 이끄는 프랑스 농민연맹은 광우병 위기와 정부의 무능력을 지탄함으로써 지역 농업회의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다. 라 파지는 "유럽인들은 1차 광우병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정치 논쟁이 야기됐다. 보건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유럽인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 공해, 광우병 등에 관해 논하고 싶어한다" 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공장식 농장'이다. 광우병 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는 유럽 농부들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줬다. 유럽의 농부들은 더이상 미국의 거대한 농업에 대해 살아남으려고 인간힘을 쓰는 소규모 농장주가 아니었다. 곡물 생산량과 가축 수량에 따라 지급되는 EU 보조금은 가능한 한 많은 곡물이나 소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식 농장'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산업형 축산업자들은 광우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돼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육골분을 원료로 한 저렴한 사료를 사용해 왔다. 물론 소규모 농장주들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동일한 사료를 사용했지만 그들은 현재의 논쟁에서 제외됐다. 광우병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같은 감시 기구의 유럽 내 설치가 무산된 것은 공장식 농장들의 로비 때문인 것으로 지탄받고 있다.

지난해 이래 이탈리아·독일·덴마크는 새 농업장관들을 임명했다. 그들은 모두 녹색당이나 자매당 소속이다. 그들은 현재 농업관련 기업 대신 소규모 유기농장에 보조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달 독일의 농업장관과 보건장관은 광우병을 둘러싼 여론의 분노에 굴복해 사임했다. 그러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즉각 레나테 퀴나스트 녹색당 공동대표를 농업·소비자보호 장관으로 임명했다. 퀴나스트는 "광우병으로 과거의 농장 정책은 막을 내리게 됐다. 우리는 공장식 농장제를 없앨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 점에서 이제 환경친화주의로 돌아섰다. 독일에서는 82%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의 국민들이 '공업형 농장제'의 폐지를 지지하고, 70%는 돈을 20% 더 내더라도 유기농산물을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퀴나스트는 올해 말까지 정부가 농장

가장 해로운 기체화력 유기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강제적으로 강화하고 유기농산물로 전환하는 농장주들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곡물농 농장생산을 유기농산물 비율 (현재 2.5%)
을 201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탈리아로 독일과 유사하게
2배이상 2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일 호환 기업들의
영양정보를 슈테판 디베르트는 '소고기'가 강화소고임을 알리고
이것은 공장형 농장주가 아니라 국민에게 의해 소고기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리니 "농장제"

이제 소규모 농장주는 영웅이라는 새 이미지가 자리잡고 있다. 한때 광적인 허피 취급을 받던 독일의 1만1천 유기 농장주들의 농작물은 이제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 헬고 슈미츠는 유기농 추세가 뿌리를 내리기 훨씬 전인 1985년 본 외곽에 있는 가족농장을 유기농으로 전환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우습다는 듯한 표정으로 우릴 보곤 했다”고 말했다.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적어도 3천명의 독일 농장주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본의 슈퍼마켓들이 슈미츠의 토마토와 아부갈라(샐러드용 시금치座 일년초)를 손에 넣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는 농장 점포의 규모를 배로 늘리고 있다. 슈미츠는 “이제 인근 농장주들도 유기농으로의 전환 방법을 묻기 위해 나를 찾는다”고 말했다.

유기농으로 전환을 꾀하려는 쪽은 소규모 농가만이 아니다. 유기식품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광우병 사태 이후 급증했다(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30%나 증가했다). 프랑스 전국유기농업연맹의 도미니크 베로는 “광우병 파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법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사회적 진화”라고 말했다. 프랑스 전국과학연구센터의 아니 위베르(인류학자)는 더 많은 젊은 농장주들이 유기농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몇년 뒤 사람들이 유기농산물을 찾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업관련 기업들도 그러한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한다. 농업관련 기업 세곳(뒤크·샤탈·프랑스 오르튀쉬)은 이번주 파리에서 열릴 농업살롱의 연례행사인 ‘이치에 맞는 농업’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유기농 생산과정’을 주제로 한 아동 대상의 강연 등이 마련된다. 이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한 또다른 업체로는 맥도널드社가 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안 베나트는 “거대기업들이 우리 행사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업체들이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큰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광우병은 유식을 둘러싼 많은 추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북해座 생선에 벌레가 켜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바이에른의 농장주들이 돼지에게 급식된 항생제를 버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주 프랑스 정부는 양 내장의 판매를 갑작스럽게 금지했다. 소비자 연구원의 장 피에르 루아젤은 “몇년 후 양·가금(家禽)은 물론 우유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With Stefan Theil in Berlin, Scott Johnson
in Paris, William Underhill in London, and Barbie Nadeau in Rome

SPECIAL REPORT 제 468호 2001.2.28

The Scare Spreads East

광우병에 놀란 가슴 달래기엔 너무 늦었다

유럽산 동물성 사료 쓰던 태국, ‘환자 발생’ 오보로 이웃나라까지 준비상

Ron Moreau 방콕 지국장

태국에서는 몇주째 첫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방 전문가들은 그 전에 이미 태국에 경고한 적이 있었다. 태국 농장주들이 영국의 광우병 위기가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에 유럽座 동물성 사료를 수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달 말 태국의 서명한 과학자인 손왕 박사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끝자란 방콕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 2명이 광우병과 (전혀 관계는 없지만) ‘유사한’ 뇌질환을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행히 그의 보도자료를 타이핑한 사람이 '유사한'이라는 말을 빠뜨려 광우병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송왕은 며칠 후 "정말 유감이다. 우리는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광우병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시아에서도 광우병 공포는 뿌리 내렸다.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외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달 태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베트남은 유럽연합(EU)산 낙농품은 수출국 정부에서 광우병 감염증 증명서를 발부한 것만 수입하라고 명령했다. 일본과 중국은 소와 양의 조직에서 추출한 클라젠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을 금지했다.

광우병 공포 앞에서 태국 당국은 속수부득이었다. 영자 일간지 더 네이션은 '부주의'하고 '눈 앞에 닥친 위험을 외면했다'는 이유에서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싱가포르의 1996년 영국 정부가 광우병과 변종 크로이츠펬트 야콥병 사이에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영국산 쇠고기와 우유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태국은 동물성 사료의 수입만을 금지했다. 그런데 그 조치조차도 너무 늦게 취했는지 모른다. 방콕 소재 출라롱코른대의 수의학자 수물라 카차나팡카는 "일부 태국 소에게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 영국에서 수입한 감염된 사료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점점 늘어나는 유럽의 광우병 확산 보도에 뒤늦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 8개국의 쇠고기와 우유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쇠고기 수입금지 대상 국가를 5개국 더 늘렸다. 보건당국은 그 13개국에서 수입한 모든 우유 가공품을 상점에서 치우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이제 당국이 광우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국의 수입 쇠고기는 대부분이 호주산이나 미국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국인들이 예전처럼 기리낌없이 쇠고기 카레를 먹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지도 모른다. 지금의 소동은 예방 연습에 불과하며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늦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SPECIAL REPORT 제 468호 2001.2.28

You Say Tomato, I Say 'Ick'

미국인은 베키어도 유럽인은 안 베키는 것

유전자 변형식품을 혐오하는 유럽서 소비 촉진할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Fred Guterl, William Underhill 기자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산 옥수수는 박테리아로부터 이식된 유전자가 들어 있어 살충 능력이 있다.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은 그 옥수수를 매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반해 유럽인들은 그같은 유전자변형(GM) 식품에 대한 혐오감을 강력히 표시해왔다. 지난 2년간 유럽연합(EU)은 새 GM 식품의 승인을 일체 거부해 왔다. 그러나 2월 14일 유럽의회는 새로운 GM 식품 관련 규정을 3백38표 52표로 채택했다. GM 식품이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첫 단계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태도가 바뀌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의 한 매신원단은 지난해 9월 前 그린피스 지도자 멜세트卿과 공범들이 GM 옥수수를 파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근 영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는 비 GM 식품만을 사료로 먹인 동물육을 원료로 한 식품만을 구입하겠다고 했다.

GM 식품 섭취의 위험성으로 알려진 것 중 대부분은 별 것 아니다. 예를 들어 **美 본산토마토가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게 하기 위해 콩에 넣은 라운드업 레디 유전자**는 어쩌다 잡초에 들어가더라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살충 능력을 지닌 GM 옥수수 꽃가루가 제주왕나비의 먹이인 유액 분비 식물에 전파된다면 어떻게 될까. **美 코넬대의 곤충학자인 존 로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꽃가루는 제주왕나비를 죽일 것이다.** 로지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물이 다 멸종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위험성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GM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은 더 잘 파악돼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알레르기**다. 예를 들어 밀에 땅콩 유전자를 넣으면 아침식사를 시리얼을 먹다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생긴 것이다. 그러나 GM 식품은 장점도 있다. 만일 곡물 자체에 살충·제초 능력이 있다면 농민들은 살충제·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GM 식품에 반대하는 유럽인 대부분의 정서를 바꿔놓지는 못할 것 같다. 그들은 식품업체들을 믿지 않는다. 몇년전 농산물업체들은 오늘날과는 달리 조심성 없이 토의도 거치지 않고 GM 식품을 시판했다. 런던 소재 소비자연합의 정책 분석가 수전 데이비스는 "GM 식품이 판매되고난 후에야 규제가 이루어졌다" 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가는 유럽인들도 GM 식품을 묵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환경보호기금의 생물학자 레베카 골드버그는 "사람들은 식품 선택의 폭이 좁아질까봐 우려한다. 농민들이 GM 종자를 쉬고 싶지 않아도 비GM 종자가 더이상 생산되지 않아 그 종자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했다

-Diet for a new America중에서-

*환경문제

- 지구 온난화의 원인: 온실효과
- 온실효과의 일차적 원인: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 육류가 배제된 식단에 비해 육류중심의 식단이 필요로 하는 화석연료: 3배 이상
- 지금까지 소실된 미국의 표토(表土): 75%
- 소실된 미국의 표토 중 가축 사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 85%
- 육류중심 식단을 위한 농지조성용 위해 사라진 미국 삼림의 면적: 2억6천만 에이커(약 1조2천억 제곱미터)
- 매년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육류 : 3억 파운드(약 1억3천6백만톤)
- 5세이하 중앙아메리카 어린이 중 영양 부족 상태의 어린이 비율: 75%
- 1/4파운드의 열대우림 쇠고기를 생산하기위해 소비되는 열대우림: 55평방피트
- 식육 사육과 다른 용도를 위해 파괴되는 열대우림으로 인해 멸종된 종(species): 1천종

*천연자원문제

- 미국에서 모든 목적으로 쓰이는 물 전부를 합한 양의 절반 이상의 사용자: 가축 사육
- 평균적인 소를 사육하는데 쓰이는 물의 양: 구축함을 물위에 뜨게 하는데 충분한 양.

- 및 1파운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 25갤런(약 94리터)
- 캘리포니아 쇠고기 1파운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 5천갤런(약 18,926리터, 즉 18.9톤)
- 모든 인류가 육류중심의 식사를 한 경우, 현재 알려진 원유 매장량이 전부 소진되는데 걸릴 시간: 13년
- 인류가 더이상 육류를 먹지 않는다면: 260년
- 쇠고기로부터 난배진 1칼로리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화석연료의 칼로리: 78칼로리
- 콩으로부터 난배진 1칼로리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화석연료의 칼로리: 2칼로리
- 미국에서 가축 사육에 쓰이는 모든 가공되지 않은 물질(화석연료를 포함해서 농업, 임업, 광업의 기초 생산물들)의 비율: 33%
- 미국에서 완벽한 채식주의의 음식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공되지 않은 물질의 비율: 2%

*항생물질 문제

- 미국의 항생물질 중 가축이 먹는 비율: 55%
- 페니실린에 저항력(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의 감염 비율(1960년): 13%
- 1988년에는: 91%
- 가축에게 일상적으로 항생제를 먹이는데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 금지
- 가축에게 일상적으로 항생제를 먹이는데 대한 미국의 식육, 제약산업의 입장: 전폭적 지지

*살충제 문제

- #일반적으로 믿어지기를: 미국 농무성은 육류 검사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 #사실은: 도살된 동물 매 25만마리 중 1마리 이하만 유독성 화학잔류물 검사를 받는다.
- 미국 어머니의 모유에 상당한 수준의 DDT(맹독 살충제)가 포함되어 있는 비율: 99%
- 미국 채식주의자 어머니의 모유에 상당 수준의 DDT가 포함되어 있는 비율: 89%
- 육식하는 어머니는 육식하지 않는 어머니에 비해, 육류제품 중의 염소화탄화수소 살충제로 인한 모유 오염의 비율이: 35배 높음
- 살충제 델드린이 모유를 먹는 평범한 미국 유아들에게 섭취되는 양: 허용치의 9배

생태공경 = 인간공경 + 지구공경 (녹색평론중에서)

생태공경

우선 무엇보다도 생태공경이라는 개념은 환원적이고 단편적인 경향에 반대하여 전일적이고 동기적인 것이 되고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변절한 전문화를 피하려고 의도되었다.

그 개념은 하나의 주어진 전체 — 지구나 우주속에서 모든 것은 모든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근원적인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시대의 가장 명민한 생태사상가 중의 한 사람인 배리 커머너는 이것을 '에콜로지 제1법칙'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역경(易經)의 전통에 따르면, '동기성(同氣性)'이야말로 우주의 제1원리인데, 이것은 작은 크든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비인과적으로 또 동시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도가의 책인 <도덕경>에서 따온 다음 구절은 네개의 우주론적 요소들이 상호연결된

연속체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주속에는 네가지 위대한 것이 있는데,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사람은 땅과 더불어 있고,
땅은 하늘과 더불어 있으며,
하늘은 도(道)와 더불어 있다.
도(道)는 있는 것과 더불어 있다.

에콜로지에 관한 고전적 저작 《원은 달해야 한다》에서 커너너는 우리의 과학공동체와 사회경제기구들이 행하는 단편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접근방법이 환경훼손을 초래한 것은 그것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의 전체성을 다루는 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환원주의라고 할 때 커너너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현대의 과학연구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의 복합적인 체제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는 그 체제의 부분들을 각기 고립시켜서 그 고립된 부분의 성질을 탐구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DDT의 사용이야말로 단편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사고와 행동방식이 얼마나 파멸적으로 극치한적인 것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선구적인 정신으로 증명하였다.

환원주의의 어리석음은 다섯명의 소경이 각기 코끼리의 일부를 만져보고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도에 우화에 요약되어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분석'함으로써 — 다시 말하여, 구체화된 전분분야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단편적인 부분들로 해부함으로써 사물을 이해하는 데 일반적으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전일적인 사고와 행동방식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전일적인 사고방식의 선양에 공헌했다고 알려져 있는 F. 데이비드 피츠와 데이비드 봄이 에콜로지론 단지 과학의 일개 전분분야로 보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견해는 우리의 미소를 자아낸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문제들[전지구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에콜로지나 어떤 다른 전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생태학이 개개 활동의 전체적 맥락에 대한 복잡한 의존관계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에콜로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학의 문제이며, 이것은 나아가서 정치와 문제, 그리고 사회구조와 인간존재 일반의 본성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둘째로, 전일적인 생태공경의 길은 오늘날 오직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데만 국한되어 있는 기성의 도덕 윤리개념을 넓히고자 한다. 미국의 뛰어난 생태철학자 엘도 레오살드는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말했다.

아직까지 인간이 땅에 대하여, 그리고 땅 위에 자라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에 대하여 맺는 관계들 다루는 윤리학이 없다. 땅은, 오디세우스의 노예 소녀들처럼, 여전히 재산일 뿐이다. 땅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아직도 엄격히 경제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땅은 인간에게 복권을 제공할 뿐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생태공경은 훌륭한 삶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이거나 전일적이다. 지구

의 건강이 우리의 전일적 사고 및 행동방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공경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들 상호간의 복합적인 관계망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인간 아닌 존재 및 사물들과의 관계가 이 원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한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공경 = 인간공경 + 지구공경

인간공경은 사람끼리의 다층적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는 데 관계하고, 지구공경은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레오폴드가 말하는 '땅의 윤리'는 우리가 지구공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요약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의 경계를 넓혀서 흙과 풀과 식물과 동물들 — 즉, 땅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지구공경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경의를 포함하는 것이다.

인간공경과 지구공경은 상호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그것들은 마치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태공경속에는 인간공경이라는 양(陽)과 지구공경이라는 음(陰)이 상호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태공경의 길은 인간 아닌 존재와 사물들을 배제하고 오직 인간 사이의 관계만을 규정하는 관습적인 윤리개념과 뚜렷이 대조된다.

이렇게 볼 때, 생태공경은 말의 어원적인 의미에서 진심으로 전복적(顛覆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습적인 지혜를 뿌리뽑아버리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밑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려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항문화적인 전향을 요구한다.

전복이나 뒤집어엎거나 탈바꿈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창조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에드워드 드 보노의 '수평적 사고'로부터 배우는 것이 —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 좋을 것이다.

드 보노는 우리가 '막혔을' 때 똑같은 구멍을 더 깊게 파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구멍을 파야 한다고 암시한다. 미국 철학자 에러집 코헨은 "인간에 대한 도덕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연에 대한 도덕적 감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일성은 새로운 사고와 행동방식 — 에코토피안적인 비전임이 분명하다.

셋째로, 새로운 생태공경 윤리는 한 극단으로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의 교만성을 극복하고, 다른 극단으로는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는 견해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 그 자체가 전체 지구에 대해서는 재앙을 기록하였다.

《시간의 하늘》에서, 생태시인 로렌 아이슬리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순간부터 있어 온 인간의 교만성을 이렇게 묘사한다.

인간의 도래와 함께 자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인다. 이 커다란 검은 소용돌이는 점점더 빠르게 돌아가면서 산과 돌과 흙과 광물을 집어삼키고, 번갯불을 뿜아내고, 원자로부터 에너지를 뱉아내어 마침내 태고의 자연의 소리는 이제 더이상 자연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자아내는 분렬화음속에 빠져버렸다.

지구공경(地球恭敬)이 생태공경속으로 짙어붙어갈 때 인간중심주의는 뒤엎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물의 보편적 질서속에서 인간이 특히 확대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배'와 '공리성'이 인간중심주의에 대하여 갖는 관계는 '조화'와 '존송(尊崇)'이 생태공경윤리에 대하여 갖는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인간공경과 지구공경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면서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인간은 다른 존재와 사물들 사이에서 하나의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자연의 일부만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생태공경의 입장이다.

인간은 모든 것들을 '보살피는 자'이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 아닌 것으로부터 구별짓는 일은 오직 하나의 통일된 유대 안에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즉, 이것은 복수주의적이며 '유기적인' 통일성, 또는 많은 다양한 것들의 어우러짐이라는 의미에서의 조화인 것이다. 따져보면, 조화라는 것은 여러 개의 목소리를 전제로 한다.

넷째, 생태공경이라는 개념은 범세계적인 것이하고자 한다. 그것은 동과 서, 남과 북, 현대와 고대, '원시적인 것'과 '문명적인 것' 사이에 생태적 개념을 세계화하기를 겨냥한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이화수정(異化受精) 또는 합류(合流)를 위한 운동이하고자 한다.

오늘날 완전히 일방적으로 유럽중심주의적 영향이 전세계에 미치고 있는 것에 맞서서 그것은 인도의 철학자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발한 '보편적 인간'의 비전을 복돋우고자 한다.